

Comparing Media Perceptions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Crises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 The Cases of South Korean Presidents Roh Moo-hyun and Park Geun-hye -

You Na Hwang^{1#}, Jae Woong Yoo²⁺

¹ Semiconductor Technology Institute in Korea University, Anam Campus, Anam-dong 5-ga, Seongbuk-gu, Seoul, Korea

² Department of Public Relations and Design, Eulji University, Yangji-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media perceptions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crises in South Korea and the presidents' communication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crises. Media reports on the 2004 impeachment of Roh Moo-hyun and 2016 impeachment of Park Geun-hye were comparatively examined. The period chosen for analysis extended from one month prior to the two presidents' respective impeachment votes to one month after the corresponding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was divided into "pre-crisis," "mid-crisis," and "post-crisis" stages. Four newspapers were chosen for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a higher rate of negative characterization for Park than for Roh in their respective reporting. Perceptions of responsibility for impeachment and characterization of the situation as a crisis were also lower for Park than for Ro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president, impeachment, communication response strategy, impeachment reporting, Roh Moo-hyun, Park Geun-hye

1. 서론

2016년 대한민국은 2004년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또 다시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두 번의 탄핵 사태는 매우 달랐다. 과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촛불집회는 탄핵 지지를 위한 집회가 되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기각하였지만 2016년에는 인용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이처럼 두 번의 탄핵 사태는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소추되었다는 사실만 같았을 뿐 사건의 발생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매우 상반되었다. 위기 상황은 커뮤니케이션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에 따라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The 1st author: You Na Hwang, Tel. +82-2-3290-3801, e-mail. ynhwang@korea.ac.kr

⁺ Corresponding author: Jae Woong Yoo, Tel. +82-31-746-7645, e-mail. yoojw777@hanmail.net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나타난 각 대통령들이 보여준 커뮤니케이션 태도는 어땠을까.

두 번의 탄핵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모든 언론매체들은 관련 뉴스를 쏟아냈다. 뉴스는 대중의 사고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 여론을 반영한다(MaCombs, *et. al.*, 2000; Lee, *et. al.*, 2007). 하지만 뉴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의미가 선별적으로 부여되는 재구성된 현실인 만큼 기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들이 뉴스의 프레임에 영향을 준다 (Pan & Kosicki, 2001; Lee & Kim, 2016). 2004년과 2016년의 탄핵사태는 발생 원인도 다르지만 여당, 야당의 위치와 국민들의 탄핵 지지여부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상황이 특히나 상반되었다. 위기 등 이슈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ideology)는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Baek & Lee, 2011). 그런 만큼 보도매체의 성격이 보도된 탄핵 뉴스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인 만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04년과 2016년 탄핵사태의 신문 보도를 대상으로 위기 단계에 따른 미디어 보도의 특징과 매체의 성격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며 위기 상황에서 두 대통령이 보여준 대응 커뮤니케이션과 여론의 반응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대통령 탄핵 및 관련 연구 고찰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과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어려운 고위

공무원을 의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절차를 말한다(Cha, 2004; Kwan, 2005). 우리 헌법 제 65조¹⁾에서는 탄핵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의 범위, 탄핵의 발의 요건, 의결 정족수, 탄핵 결정의 효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

헌법상에 규정되어있듯이 대한민국의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으로 나뉘며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진행하고 이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는 두 번 있었다. 첫 번째 대상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며, 국회에서 2004년 3월 12일에 소추 발의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14일에 탄핵안을 기각 결정했다. 두 번째 탄핵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2016년 12월에 소추해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에 가결 결정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16년 12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외의 경우 정치적 상황이 불안한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유럽에서는 국가 최고 정치지도자가 아직 탄핵된 적이 없다.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탄핵절차가 진행되었지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먼저 사임하였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적이 있다.

대통령이나 국가원수의 탄핵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며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국가 최대 위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위기관리 차원의 학술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연구의 경우 주로 탄핵 심판 제도에 대한 법적 관점

1)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에서 분석한 연구와 탄핵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정당에 관한 정치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Yoon, 2005; Kang, 2012; Kim, 2017). 이 밖에 미디어의 탄핵 보도에 대한 연구는 보도된 뉴스에 대한 분석보다는 탄핵보도를 통해 나타난 여론형성 과정과 탄핵시기 대통령의 수사학적 분석 그리고 방송보도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 정도이다(Park & Lee, 2004; Ryu, *et. al.*, 2004; Lee, *et. al.*, 2008). 해외 연구로는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태를 겪으며 이에 대한 방송 뉴스를 비교분석한 연구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Kagay, 1999; Baym, 2004; Shirky, 2011).

2. 대통령 탄핵 위기와 효과적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대통령 탄핵은 국가차원의 중대 위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위기를 커뮤니케이션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위기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위기 대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다양한 위기들을 유사한 성격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대응 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위기 유형부터 살펴보면, 위기 유형은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Kim & Sung, 2012). 그 중 대표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콥스(Coombs, 2011)는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대하여 공중이 인식하는 조직의 책임 수준을 기준으로 위기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조직의 책임 수준이 가장 낮은 ‘루머’에서부터 ‘자연재해’, ‘악의에 의한 위기’, ‘사고’, ‘범죄’에 이르기 까지 5가지 유형으로 위기를 구분하였다. 콥스 등(Coombs & Holladay, 1996)은 위기관리에 상황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하면서 위기 원인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고, 위기 상황을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으로 구분해

4가지 유형의 위기-사고(accident), 위반(transgression), 실수(faux pas), 테러리즘(terrorism)-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기에 처한 조직이 위기 국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구사해야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사의 대표적인 학자인 콥스(Coombs, 1999/2001)는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SCCT)에서 위기 전문가들이 개발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목록 중 2회 이상 중복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모아 일곱 가지로 위기 대응 전략을 정리하고 있다. 이들 전략은 위기의 책임을 조직이 수용하고자 하는 정도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콥스(Coombs, 1999/2001)는 ‘귀인’(attribution) 즉,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 수준에 따라 위기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책임이란 조직 스스로 인정하고 규정하는 책임이 아니라, 위기에 대해 조직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위기로 인한 명성의 피해가 커지면 조직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수용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고 콥스는 주장한다(Coombs, 1999/2001; Yoo, 2008).

콥스에 의하면 조직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크게 방어적인 것과 수용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방어 전략은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수용 전략은 위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거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교정 노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과’ 전략은 위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가장 수용적인accommodative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정 조치’ 전략은 위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위기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환심 사기’ 전략은 조직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위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합리화’ 전략은 위기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위기가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명’ 전략은 위기를 인정하지만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부인’ 전략은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위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공격’ 전략은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어 전략이다. 위기가 존재한다거나 희생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을 상대로 직접 공격하는 것이다. 법정 소송은 공격의 한 방법이 된다. 조직은 스테이크홀더의 관심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오히려 비난한다 (Yoo, 2015).

쿵스의 위기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사고’에 해당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인용된 것이 말해주듯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같은 탄핵이라고 하더라도 수용자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보다 위기 발생의 책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탄핵 위기에 직면해서 두 대통령이 각각 어떠한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차원의 특별한 위기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대처였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중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통령 탄핵 보도와 프레임링 이론

뉴스 보도연구에서 프레임링(framing)은 중요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 틀로 활용되어왔다. 뉴스 프레임링은 하나의 뉴스 기사에 내재되고 외포된 핵심적인 테마로 지칭된다. 엔트만(Entman, 1993)은 프레임링 패러다임을 정교화하면서 뉴스 테마는 기사의 본질, 문제, 원인, 판단, 해결이라는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했다. 이때 어떤 카테고리가 더 강조되는가가 프레

이밍을 결정지으며 이는 결국 수용자들이 뉴스를 해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어떤 사회적 이슈가 본질, 문제, 원인, 판단, 해결의 책임이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거나 사회 전체가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에 따라 수용자의 해석체계는 달라진다. 가령 언론이 “빈곤”이라는 이슈를 개인의 잘못으로 보도하느냐, 아니면 사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여론 지형은 다르게 형성된다. 이러한 프레임 형성(frame building) 과정에서 특정 시각이 더 많이 강조되어 보도되거나 부각된다.

결국 하나의 뉴스 기사가 완성되기 까지 저널리스트들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요인들이 프레임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프레임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운데 하나가 “조직의 구조적 압력과 제약”(Scheufele, 1999)이나 “이념적 가치”(Shoemaker & Reese, 1996)가 꼽힌다. 이는 저널리스트가 기사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몸담고 있는 언론사 조직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지니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해당 언론사가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 등에 따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석방식으로 다르며, 프레임링 역시 다르게 구성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사회문화적 가치” 측면이다 (Scheufele, 1999). 특정 기사 또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조직이 그 사회와 문화적 태두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기사의 프레임이 결정된다고 본다. 가령 특정 회사의 “노동 운동”을 어떤 신문은 파괴행위로 보는 반면에 어떤 신문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산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Simon & Xenos, 2000). 요약하면,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라 특정한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재현된다는 것이다.

언론은 사회 여론을 반영하지만 미디어마다 갖고 있는 뉴스 프레임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프레임 형성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조직의 압력과 제약 차원에서 바라보는 보수-진보 언론의 차이,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른 보도 프레임 차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탄핵 위기 진전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미디어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지, 또한 두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어떠한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했고 이에 따른 여론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론 보도량은 탄핵 위기 단계에 따라 신문매체별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가?(보도량)

연구문제 2: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론 보도 논조는 탄핵 위기 진전에 따라 신문매체별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가?(논조분석)

연구문제 3: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론 보도에 있어 대통령의 위기 책임 인식에 대한 언론 보도는 신문매체별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가?(대통령의 위기책임 인식)

연구문제 4: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론 보도에 있어 대통령의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언론의 인식은 신문매체별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가?(대통령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대응 전략)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과 기간

본 연구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내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여론은 요동쳤고 국내의 모든 미디어에서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어떤 사건이 발생 후 미디어의 보도는 발생, 확산, 수습되는 과정을 보이며 각 기간에 따라 집중되는 미디어의 태도가 달라진다(Park & Lee, 2013; Hwang, *et. al.*, 2016).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두 건의 탄핵사건에 대해 국회의 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론과 미디어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사태 진전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대처는 어떠한지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위기진전 단계를 분류할 때 흔히 위기 발생 전, 위기 중, 위기 후 등 3단계 분류법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 본 연구에서도 탄핵위기를 3단계로 분류해 분석대상 기간을 설정하였다. 즉, 분석 대상 기간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공히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1개월 전부터 헌법재판소 선고 후 1개월까지로 해서 1단계(위기 전)는 탄핵소추 의결 전, 2단계(위기 중)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 재판소 의결 전, 3단계(위기 후)는 헌법 재판소 의결 후 로 구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구분 시기는 1단계(국회 탄핵 소추 전 2004.02.13 ~ 2004.03.12), 2단계(국회 탄핵 소추 후부터 헌재 의결 전 2004.03.13 ~ 2004.05.14), 3단계(헌재 의결 후 2004.05.15 ~ 2004.06.14) 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단계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전 2016.11.10 ~ 2016.12.09), 2단계(국회 탄핵 소추 의결 후 헌재 의결 전 2016.12.10 ~ 2017.03.10) 3단계(헌재 의결 후 2017.03.11 ~ 2017. 04.10) 로 구분하였다.

분석대상은 먼저 신문사의 매부 수, 역사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사건이 정치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만큼 신문사의 이념적 성격도 고려하여 선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언론의 보도는 신문사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 보도 프레임이 다르게 나타나며 편향된 뉴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Lee, 2011; Park, 2011; Im, 2013).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진보적 매체로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을 선택하였으며 보수적 매체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선택하였다.

분석데이터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보도 제목(title)이다. 최근 수용자의 뉴스 소비 형태가 기사의 내용보다는 제목이 여론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강현직, 2012). 또한 기사의 제목은 각 편집데스크의 의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같은 내용의 기사일 지라도 다른 내용의 제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Kim, 2007; Hwang, *et. al.*, 2016).

이처럼 기사제목은 수용자의 여론형상에 영향을 주며 각 매체의 성격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분석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자료는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면 DB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탄핵’이라는 검색어로 4개의 신문사에서 분석기간 동안 검색된 기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총 3820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사는 5798개로 총 9618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이후 데이터 필터링 과정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은 1125개 박근혜 대통령은 961개 총 2086개의 기사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링 이론에 입각해 미디어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라 기사의 방향과 논조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보수 및 진보 신문을 대상으로 기사 제목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통계 분석과 함께 각 분석항목에 대한 카이스퀘어 분석을 통해 대통령들 간의 보도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였다. 분석 항목은 미디어의 보도량과 논조 그리고 각 대통령의 위기대응 태도와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인식이다. 탄핵에 대한 기존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콤스의 기존 연구를 참고하였다. 콤스에 의하면 조직의 위키커뮤니케이션 전

략은 크게 수용과 방어로 나뉘며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은 조직 스스로 인정하고 규정하기 보다는 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위기대응 태도와 책임인식 항목을 규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들 중 탄핵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사들은 직접 관련기사로 분류하였고 탄핵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상황과 관련된 기사들은 간접적 기사로 분류하여 탄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기사의 보도량과 논조를 통해 탄핵 사건에 대한 각 신문사의 관심과 그 방향을 탄핵 위기 단계별로 비교했으며 기사 제목에서 나타나는 탄핵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 태도는 책임인식과, 위기대응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했다(<Table 1>).

IV . 분석 결과

전체 2068개의 기사 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문 기사는 1125개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문기사는 961개이다. 신문사의 보도량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4개 신문사가 모두 25% 내외의 비슷한 보도량을 보이며 신문사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도의 경우 한겨레의 보도량이 42% 가장 높으며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보도량은 상대적으로

Table 1. Category for news title

1. Responsibility recognition	탄핵 상황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들이 느끼는 책임에 대해 기사에 나타나는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 “최순실 책임 떠미는 건 연좌제”라는 차대통령 “위법이라 해도 경미... 탄핵은 지나친 처사” 盧대통령, 침묵 깨고 정면으로 반박
2. Crisis Response	기사에 나타난 청와대와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방어와 수용으로 분류 끝까지 가보자는 박 대통령 “탄핵 이유 없다” [탄핵기각] 탄핵주도 3인 “현재결정 존중”
3. Directly/indirectly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사 제목은 직접적 기사로 분류 탄핵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상황과 관련된 기사는 간접적 기사로 분류 “탄핵방송 비판한 저의가 뭐냐” KBS·MBC, 연일 언론학회 비판 탄핵 정국 성난 여론에 ‘흔들’... ‘국정화 철회’ 퇴로 명분 찾기 노대통령 “현재 결론은 다를 것” 박 대통령 측 “춧불은 민심이 아니다”
4. Newspapers tone	탄핵과 관련된 기사의 제목이 부정적 논조, 긍정적 논조, 그리고 중립적 논조 중 어떤 논조를 띄고 있는지 기준으로 분류 “협조” 약속해놓고 ‘수사 불응’ ... 탄핵 자초한 박근혜 [사설] 대통령과 야당, 탄핵 갖고 위험한 장난 말라

낮게 나타났다.

분석 기사 중 탄핵에 대한 대통령, 청와대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직접관련 기사는 전체 분석 데이터 중 약 24% 이고 나머지는 탄핵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문제와 같은 간접적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이다. 직접, 간접 기사 비율에 대해 대통령들을 각각 비교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직접관련 보도는 18% 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1%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관련 기사 비율은 두 대통령의 평균인 24% 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이런 차이는 같은 탄핵상황이라고 해도 두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된 계기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과 사적으로 연관된 사람과의 문제로 인해 사건이 시작되었던 만큼 탄핵 보도기사에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Table 2>).

1) 탄핵 사태에 대한 미디어의 모습

(1) 탄핵 위기 단계 따른 각 대통령의 신문매체별 보도량 분석

탄핵 위기 단계에 따라 분석기간을 분류해서 기사의 보도량을 분석해 본 결과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

통령은 기사의 보도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인 2단계에서 가장 많은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기 전, 위기 후 순으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보도량이 높은 순서는 위기 중, 위기 전, 위기 후 순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순서로 기사가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각 기간 동안 보도된 기사 비율을 살펴보면 가결 전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 후 시기에 보도된 기사가 모두 노무현 대통령 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Table 3>).

특히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인 1단계에 보도된 기사량은 31%로 노무현 대통령 경우 16%가 나온 것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았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에도 나타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3단계 보도량은 전체의 11%로 그 2단계의 73%에서 급격한 감소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3단계 보도량이 18%로 2단계 51%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그 감소폭은 적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했던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사태는 종결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Unit: number(%))

Newspaper company		Roh's	Park's	Total
Chosun	Directly	60	71	131
	Indirectly	230	76	306
	Total	290(26)	147(15)	437
DongA	Directly	43	54	97
	Indirectly	244	197	441
	Total	287(25)	251(26)	538
Hankyoreh	Directly	53	109	162
	Indirectly	204	295	499
	Total	257(23)	404(42)	661
Kyunghayng	Directly	53	67	120
	Indirectly	238	92	330
	Total	291(26)	159(17)	450
Total	Directly	209(19)	301(31)	510(24)
	Indirectly	916(81)	660(69)	1576(76)
	Total	1125(100)	961(100)	2086(100)

Table 3. Rate of newspapers reported during the crisis stage

(Unit: %)

Crisis Level***		Level 1 (pre-crisis)	Level 2 (mid-crisis)	Level 3 (post-crisis)
Roh's	Chosun	16	77	7
	DongA	15	75	10
	Hankyoreh	19	67	14
	Kyunghyang	17	72	11
	total	16	73	11
Park's ***	Chosun	16	49	35
	DongA	24	53	24
	Hankyoreh	40	47	13
	Kyunghyang	35	57	9
	total	31	51	18

$\chi^2=53.155$ df=6 $p<.001$, $\chi^2=66.240$ df=6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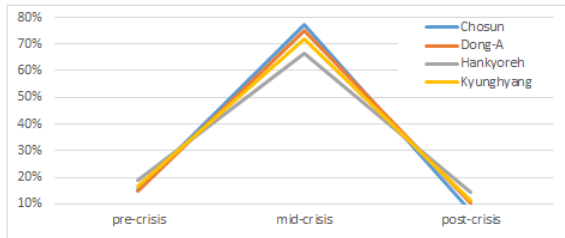


Figure 1. Roh's news rate

되기 보다는 ‘대통령 선거’라는 새로운 사안으로 넘어갔다. 이로 인해 대중의 관심은 지속되었고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 기사의 보도량도 나타났다고 보인다 (<Figure 1>, <Figure 2>).

좀 더 세부적으로 위기단계 따라 각 기간 동안 보도된 기사들을 신문사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신문사별 보도량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신문사별 보도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단계의 보도 비율을 그래프화 하여 시각적으로 살펴 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기간 동안 각 신문사의 보도 형태는 4개의 신문사 모두 유사한 비율 패턴을 보인다. 각 신문사의 보도비율은 각 단계별 전체 평균인 16%, 73%, 1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보도의 경우 각 단계에서 4개의 신문사가 모두 다른 보도 형태를 보인다. 공통적으로는 4개의 신문사 모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인 2단계의 보도량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신문사의 성격에 따라 탄핵 사태 기간 동안 집중한 기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경우 1단계 보도량이 전체의 40%, 35%에 이르며 사건 발생 초기에 타 신문사에 비해 관심을 집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는 사건 초기에 비해 보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1단계에는 16%에서 3단계에는 35%로 보도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1단계와 3단계의 보도량이 각각 24%로 동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서는 신문사의 성격에 따라 관심을 가진 시기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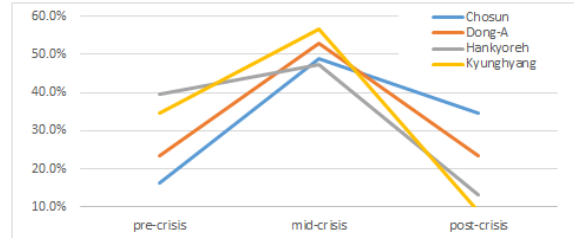


Figure 2. Park's news rate ***

(2) 탄핵 위기 단계에 따른 논조 분석

탄핵 위기 단계에 따른 기사 논조 분석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를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 직접 기사는 탄핵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직접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기사로 이는 탄핵 상황에 놓인 대통령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직접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추후 탄핵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인식과 대응 커뮤니케이션 결과와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위기단계에서 매체에 따른 보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두 대통령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3단계에서 조선, 동아일보의 부정적 논조 보도량이 한겨레와 경향일보에 비해 매우 보도되긴 하였지만 그 이외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매체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위기단계별로 통합하여 위기 단계에 따른 논조를 분석한 결과 두 대통령의 보도 논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각 대통령의 전체기사에서 논조를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중립 81%, 부정 17%, 긍정 2% 박근혜 대통령은 중립 75%, 부정 23%, 긍정 2%의 비율로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부정적 논조의 기사 비율이 높았다.

전체 기사 중 직접 기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접기사에서도 대통령에 따라 보도 논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보도는 위기 단계에 따라 논조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중립 75%, 부정 22%, 긍정 4%의 비율로 논조가 나타났으며

Table 4. Rate of newspapers tone during the crisis stage

(Unit: %)

Newspaper Company***		level 1(pre-crisis)			level 2(mid-crisis)			level 3(post-crisis)			Total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Roh's Direct News	Chosun	14	29	57	0	79	21	33	67	0	3	72	24
	DongA	0	56	44	8	79	13	0	56	44	5	69	26
	Hankyoreh	0	88	13	9	64	27	0	78	22	4	74	23
	Kyunghyang	0	88	13	0	86	14	20	80	0	2	86	12
	Total	3	66	31	3	78	19	5	73	23	4	75	22
Roh's News Total		1	70	29	2	83	15	5	79	16	2	81	17
Park's Direct News***	Chosun	0	69	31	0	66	34	0	100	0	0	73	27
	DongA	8	50	42	0	60	40	0	83	17	2	63	35
	Hankyoreh	7	24	69	0	77	23	0	80	20	2	63	35
	Kyunghyang	0	39	61	2	43	55	0	14	86	1	39	60
	Total	4	40	56	1	64	38	0	77	23	1	60	39
Park's News Total		4	68	28	2	77	21	2	79	19	2	75	23

p* < .01, p*** < .001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중립 60%, 부정 39%, 긍정 1%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기사와 직접기사의 논조 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직접기사에서 부정적 논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17%에서 22%로 직접기사에서 부정적 논조의 비율이 5% 더 많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3%에서 39%로 직접기사에서 부정적 논조가 16% 더 많았다. 이를 통해 탄핵 보도에서는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사에서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더 많이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도된 기사의 논조 비율은 두 사건보도 모두 중립, 부정, 긍정적 논조 순으로 보도량이 많았다. 그리고 이 비율은 각각의 위기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level 1 단계에서만 다르게 나타났다. 위기단계에서 level 1은 부정적 논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단계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접 기사 중 level 1 단계에서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중립적 기사보다 더 많이 보도되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사건발생 초기에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모든 위기 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보도 보다 부정적 보도의 논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비교하여 더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미디어 보도에 나타난 대통령의 위기 책임인식과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1) 미디어 보도에 나타난 대통령의 위기 책임인식

위기 책임인식은 탄핵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보이는 태도를 기준으로 분류했던 만큼 분석대상 기사 중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접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5〉). 분석결과 탄핵상황에 대한 두 대통령의 위기 책임인식은 대통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위기단계에 따른 책임인식의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두 대통령의 책임인식은 차이를 보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위기단계가 변함에 따라 책임인식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책임인식이 낮다는 기사는 모든 1단계에 가장 많다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책임인식이 높게 나타난 기사는 3단계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위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각 항목의 보도량에서 두 대통령은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위기단계에서 책임

Table 5. Rate of crisis responsible level

(Unit: %)

Crisis level and newspaper company			Responsible level***		
			High	Normal	Low
Roh's ***	Level 1	Chosun	86	14	0
		DongA	11	44	44
		Hankyoreh	100	0	0
		Kyunghyang	0	13	88
		Total	47	19	34
	Level 2	Chosun	25	73	2
		DongA	29	33	38
		Hankyoreh	91	5	5
		Kyunghyang	0	55	45
		Total	32	49	20
	Level 3	Chosun	0	100	0
		DongA	22	56	22
		Hankyoreh	100	0	0
		Kyunghyang	20	60	20
		Total	65	28	8
Park's	Level 1	Chosun	0	0	100
		DongA	8	50	42
		Hankyoreh	17	38	45
		Kyunghyang	56	44	0
		Total	22	35	43
	Level 2	Chosun	0	14	86
		DongA	0	50	50
		Hankyoreh	39	58	3
		Kyunghyang	19	24	57
		Total	19	38	43
	Level 3	Chosun	29	36	36
		DongA	8	42	50
		Hankyoreh	90	10	0
		Kyunghyang	0	14	86
		Total	33	28	40

p** < .01, p*** < .001

의식이 낮다는 기사가 43%, 43%, 40%로 노무현 대통령의 34%, 20%, 8%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이후에야 책임인식이 높은 보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탄핵 위기단계 내내 기사에서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인식은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언론매체에 따른 책임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위기 단계에서 대통령의 책임

이 높다는 기사가 낮다는 기사보다 많이 보도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반대로 책임이 낮다는 기사가 높다는 기사보다 많이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탄핵에 대한 두 대통령의 입장은 달랐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선거에 관련된 발언이 위법이라고 할지라도 탄핵안이 가결된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이 되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탄핵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차이가 보도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2) 미디어 보도에 나타난 대통령의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탄핵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위기 대응 태도는 대통령에 따라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위기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서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상황에 대해 책임이 높다고 인식한다면 위기에 대한 수용과 사과를 하며 자신의 책임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공격과 같이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주장한다(Coombs, 1999/2001; Yoo, 2008). 대통령의 대응 커뮤니케이션 분석은 대통령 혹은 청와대의 직접적인 태도가 나타난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해야 했던 만큼 전체 기사 중 직접적 기사를 대상으로 카이스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두 대통령은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탄핵상황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위기상황을 수용하는 기사가 전체 기사 중 70%이며 반박하는 기사는 30%의 비율로 나타났다. 위기단계에 따른 태도 변화를 살펴보면 1단계에는 위기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반박하는 태도의 기사가 수용하는 기사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지만 2단계 이후로는 위기상황을 수용하는 기사가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탄핵 상황을 수용하는 기사는 10% 정도이며 약 90% 정도는 위기상황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기사였다. 위기 단계에 따른 태도 변화를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단계, 즉 국회에서 탄핵

Table 6. Rate of president's crisis-responsible attitude

			(Unit: %)	
Crisis level and newspaper company			crisis response**	
			Accept	Deny
Roh's **	Level 1	Chosun	43	57
		DongA	33	67
		Hankyoreh	88	13
		Kyunghyang	13	88
		Total	44	56
	Level 2	Chosun	92	8
		DongA	75	25
		Hankyoreh	64	36
		Kyunghyang	62	38
		Total	76	24
	Level 3	Chosun	100	0
		DongA	44	56
		Hankyoreh	78	22
		Kyunghyang	80	20
		Total	73	28
	Total		70	30
Park's	Level 1	Chosun	0	100
		DongA	8	92
		Hankyoreh	14	86
		Kyunghyang	28	72
		Total	14	86
	Level 2	Chosun	5	95
		DongA	0	100
		Hankyoreh	11	89
		Kyunghyang	5	95
		Total	6	94
	Level 3	Chosun	50	50
		DongA	0	100
		Hankyoreh	10	90
		Kyunghyang	0	100
		Total	19	81
	Total		10	90

p** < .01, p*** < .001

안이 가결된 이후 가장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이 난 3단계에도 탄핵 상황을 수용하는 기사는 19%로 탄핵 기간 내내 상황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반박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기 단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태도 분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위기 단계에 따라 대응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위기단계에 따른 태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체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의식과 위기대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앞서 분석한 기사의 논조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기사의 논조 분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적 논조가 23%이며 직접적 기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부정적 논조의 기사 비율이 39%로 증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체 기사 중 부정적 논조는 17%이며 직접관련 기사에서는 부정적 논조가 22%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적 논조의 보도비율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높지만 탄핵사태에 대한 책임인식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적으며 사태에 대한 수용능력도 더 낮게 나타난다. 이 분석은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탄핵사태를 바라보는 대중의 생각과 대통령의 인식이 박근혜 대통령이 상반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도에 대해 내용분석을 방법을 이용하여 탄핵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보인 대통령의 태도와 미디어의 보도 특징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에서는 위기상황에서 두 대통령이 보인 대응 방식을 알아보고 대중의 인식과 대통령의 태도가 위기 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이론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대통령 탄핵사건 보도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량을 비교한 결과 두 대통령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각 위기 단계에서 매체의 성향과 관련 없이 4개의 신문매체가 모두 유사한 보도 비율을 보인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위기단계에서 신문매체가 모두 다른 보도 비율을 보였다. 특히 박대통령의 경우에는 위기단계의 1단계와 3단계의 신문사 비율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 진보적 매체는 사건 발생 초기에, 그리고 보수적 매체는 사건 발생 후기에

더 집중하여 보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진보 성향의 매체가 문제제기를 주도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건 발행 후반에는 문제가 공고화돼 매체의 성향과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사건보도를 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문사별 보도 차이는 논조에서도 발견되었다. 부정적 논조가 가장 높게 나온 신문과 낮게 나온 신문이 대통령에 따라 정반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매체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와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두 대통령의 보도 논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부정적 논조의 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위기단계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초반 기사에서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중립적 논조의 기사보다 더 많이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중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 초반부터 매우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탄핵의 사유가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비리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보다 탄핵상황에 대한 책임의식과 위기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인식을 보여주는 미디어 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이 탄핵 상황을 수용하는 기사는 10% 정도이며 약 90% 정도는 위기상황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기사였다. 위기 단계에 따른 태도 변화를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가장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이 난 이후에도 탄핵 상황을 수용하는 기사는 19%로 탄핵 기간 내내 상황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반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기사가 보도된 것과는 상반된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가 현격히 달라 부정적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탄핵의 원인은 상이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각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의 태도와 각 대통령의 위기커뮤니케이션 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위기관리 뿐만 아니라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심화시킨 연구로써의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대중의 위기 책임 인식과 부합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위기 발생 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메시지를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연구방법의 한계이다. 이는 분석대상과 분석방법의 한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4개의 신문사의 기사제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표성을 띤 매체와 내용을 선택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 신문이 외의 인쇄매체나 TV와 같은 영상매체 그리고 SNS와 같은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추가하여 분석을 시행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기존연구가 적고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집중적으로 보려 했던 만큼 분석항목도 관심 분야에 맞춰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유의하여 분석 항목을 수정하고 분석방법 또한 서베이 분석, 패널분석과 같은 방법을 추가한다면 탄핵 사태에 대해 보다 더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두 번째 분석 사례의 한계이다. 대통령 탄핵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사태로 유사한 사유로 인한 탄핵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일이 용이치 않아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 상이한 사유로 인한 대통령탄핵보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참고로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사태처럼 불법 비리와 관련된 것이어서 언어적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상호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라도 사유가 크게 달라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부분이 많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는 브라질 대통령 탄핵케이스는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제

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내용분석에 입각한 양적연구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위해서는 양적 연구와 더불어 대통령 탄핵의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를 후속연구 과제로 제안한다.

References

- Back, Seon Gi and Keum Ah Lee. 2011. Media Coverage Patterns of the Sinking of 'Cheonan warship' and their Ideological Implications: A Semiotic Study on the Media Coverage through Back's Semiotic Network Analysis and Discursive Structure Analysis. *Journalism & Communication*. 15(1): 93-135.
- Baym, G. 2004. Packaging reality: Structures of form in US network news coverage of Watergate and the Clinton impeachment. *Journalism*. 5(3): 279-299.
- Cha, Kang Jin. 2004. Legal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impeachment motion for President Roh Moo-Hyun. *Public Law Journal*. 5(3):189-215.
- Coombs, W. T. 1999.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Thousand Oak: CA, Sage. 이현우 옮김(200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 Coombs, W. T. and S. J. Holladay. 1996. Communication and attribution in a crisis: An experimental study in crisis communicatio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8(4): 279-295.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Hwang, You Na, Mi Hyeon Jeon, and Jae Woong Yoo. 2016. Examining the Trends of Reporting Characteristics in Media Coverage of Disaster-A Network and Content Analysis of the Sewol Ferry Sinking. *Crisisonomy*. 12(3): 1-15.
- Im, Yang June. 2013. An Analysis of News Frame On the Attack Against ROK Ship Cheonan in the Selected Korean Daily Newspapers. *Journal of Social Science*. 52(1): 251-285.
- Kagay, M. R. 1999. Presidential address: Public opinion and polling during presidential scandal and impeachment.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63(3): 449-463.
- Kang, Goo Wook. 2012. A Study on Impeachment. *Law Review*. 53(3): 85-114.
- Kang, Hyun Jig. 2012.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Newspaper Headlines: Focused on News Influence Variables, Editor's Role Orientation and Professionalis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8): 347-365.
- Kim, Jin Wook. 2017. The Grounds for Presidential Impeachmen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Focusing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65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5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5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5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Justice*. 161: 5-44.
- Kim, Min Young. 2007. The Textlinguistics Study on TV News headline. *The Textlinguistic Society Of Korea*. 23: 95-127.
- Kim, Yoon Ji and Min Jung Sung. 2012. The Effect of CSR Cause-Fit, Crisis Domain and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on Consumers' Attitude Toward a Company.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3(8): 61-85.
- Kwang Yung Sun. 2005. *Constitutional Principles*. Bobmunsa.
- Lee, Gun Ho, Chan Yun Yoo, and Maxwell E. McCombs. 2007. The Second Level Agenda Setting Effects of Environment Issue : Regarding Competing Attributes in Global Warming Issu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1(2): 153-179.
- Lee, Gwi Hye, Jun Kang Nam, and Jong Young Lee. 2008. The Study on Rhetoric ofP resident Moo-Hyun Noh in Impeachment Period : Focusing on Computerized Text Analysis Progra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5): 25-55.
- Lee, Hee Young and Jung Kee Kim. 2016. The News Frame Type by Qualitative Meta-Synthesis : On Korean News Frame Studi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4): 7-38.
- Lee, Won Sup. 2011. A study on arbitrary reporting of 3 major media in terms of their coverage on Yongsan incident.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1(3): 169-212.
- McCombes, M., E. Lopez-Escobar, and J. P. Llamas. 2000. Setting the agenda of attributes in the 1996 Spanish general ele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77-92.

- Oh, Myung Jin. 2012. A Study on the Records of Presidential Impeachment in 2004 in the Public Domai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2(2): 45-78
- Pan, Z. and G. M. Kosicki. 2001. Framing as a strategic action in public deliberation. In *Framing public life* (pp. 51-82). Routledge.
- Park, Ki Soo. 2011. A News Frame Analysis on Socially Controversial Issue: Comparing Three Korean Daily Newspapers Attitude on Lee Myung-bak Government's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4): 5-26.
- Park, Kyong Suk and Kwan Youl Lee. 2004.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formation process of public opinion on a political issue - a case study of Presidential impeachmen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8(4): 271-305.
- Park, Seong Cheol and Duck Hwan Lee. 2013. TV News Coverage on 'Unfamiliar Accidents' : Gumi Gas Leakage Accident Case in 2012.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7(5): 86-123.
- Ryu, Han Ho, Min Jae Choi, Sang Il Lee, Ja Cheul Jeong, and Kwan Yung Lee. 2004. Television presidential impeachment report and 17th general election coverage. *Korean Association for Boarding & Telecommunication Seminar*.
-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 Shirky, C. 2011. The political power of social media: Technology, the public sphere, and political change. *Foreign Affairs*. 90(1):28-41.
- Shoemaker, P. J. and S. D. Reese.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 Longman.
- Simon, A. and M. Xenos. 2000. Media framing and effective public delibe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7: 373-376.
- Yoo, Jae Woong and Hyun Yu Park. 2008. Blic Reactions to Korean Government Messages to Restore Public Trust in the Wake of the Crisis Stemming from the Decision to Resume U.S. Beef : Imports Centering Around the Reactions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2(2): 108-134.
- Yoo, Jae Woong. 2015. *Understanding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Books.
- Yoon, Jong Bin. 2005.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he impeachment issue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Korean Party Studies Review*. 4(1): 205-227.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구옥. 2012. 탄핵 (彈劾, impeachment) 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3(3): 85-114.
- 강현직. 2012. 신문기사 제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뉴스영향변인 · 편집자의 역할지향성과 전문직업관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0(8): 347-365.
- 권영성. 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민영. 2007. TV 뉴스 헤드라인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23: 95-127.
- 김윤지, 성민정. 2012. CSR 적합성과 위기 발생 영역,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23(8): 61-85.
- 김진욱. 2017.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위반의 중대성. 저스티스. 161: 5-44.
- 류한호, 최민재, 이상길, 정재철, 이권영. 2004. 제 2 주제 발표: 텔레비전의 대통령 탄핵 및 제 17 대 총선 보도.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42-87.
- 박경숙, 이관열. 2004. 정치적 이슈의 여론 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18(4): 271-305.
- 박기수. 2011. 4대강 사업 뉴스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 한국언론학보. 55(4): 5-26.
- 박성철, 이덕환. 2013. 구미 유독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보도 연구. 한국방송학보. 27(5): 86-123.
- 백선기, 이금아. 2011. '천안함 침몰' 사건의 보도경향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언론학연구. 15(1): 93-135.
- 오명진. 2012. 공공영역의 2004년 대통령탄핵사건 기록. 기록학연구. 32(2): 45-78.
- 유재웅. 2008.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란에 대한 정부의 위기극복 메시지와 공중의 반응: 서울지역 대학생 공중의 반응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2(2): 108-134.
- 유재웅. 2015. 위기관리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윤종빈. 2005. 제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탄핵 쟁점의 영향력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4(1): 205-227.

- 이건호, 유찬윤, 맥스웰, 맥콥스 (2007). 환경 문제의 2 차 의제 설정효과. 한국언론학보. 51(2): 153-179.
- 이귀혜, 강남준, 이종영. 2008. 탄핵 시기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학 연구: 컴퓨터 언어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5): 25-55.
- 이원섭. 2011. 용산참사 보도를 통해 본 언론의 자의적 보도행태. 민주주의와 인권. 11(3): 169-212.
- 이희영, 김정기. 2016.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뉴스프레임의 유형. 한국언론학보. 60(4): 7-38.
- 임양준. 2013. 한국 신문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프레임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52(1): 251-285.
- 차강진. 2004.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공법학연구. 5(3): 189-215.

Received: Jan. 16, 2018 / Revised: Mar. 28, 2018 / Accepted: Apr. 4, 2018

대통령 탄핵위기 및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미디어 인식 비교

– 노무현 vs 박근혜 대통령 탄핵관련 언론 보도 비교 분석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통령 탄핵 위기와 이에 대한 대통령측의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 언론 보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두 대통령 공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1개월 전부터 헌법재판소 결정 후 1개월까지로 잡아 위기 전, 위기 중, 위기 후 등 3단계를 설정하였다. 분석대상 매체는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등 4개 매체를 선정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두 대통령에 대한 보도 논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부정적 논조의 기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보다 탄핵상황에 대한 책임의식과 위기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이론적, 실무적 함의,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통령, 탄핵, 커뮤니케이션 대응 전략, 탄핵보도, 노무현, 박근혜

Profiles **You Na Hwang** : She i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Semiconductor Technology Institute in Korea University. She received M.A. and Ph.D. from Korea University. Her research area i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on Science & Technology Studies. She is currently interested in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scientific issues and journalism using network analysis and big data(ynhwang@korea.ac.kr).

Jae Woong Yoo : He is a Professor of Public Relations & Design at Eulji University in Korea.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crisis communication, journalism, social media. His major books are Crisis Study of Korean Society(2011), Country Image(2013), and Government Public Relations(2014). “Effects of celebrity-organization congruence on audience attitudes, preferences, and credibility ratings for goodwill ambassadors”(2013), “Reflecting absence: Representing the extraordinary deaths of ordinary sailors in the media”(2014) (yoojw777@hanmail.net).